

이 보도자료는 2023. 12. 6.(수)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 12. 6.(수)
 자료 문의 :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마약과)
 전화번호 : 02-3480-2290
 주 책임자 : 대검 마약과장 박경섭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팩스 02-3480-2704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3차 회의」 개최

- 마약사범 역대 최다인원 단속(‘23. 1.~10. 22,393명 적발), ‘프로포폴·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범죄 엄단, 클럽 등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위한 협력강화(검·경·서울시 MOU 체결)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오늘(12. 6.)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대검찰청에서 개최하여 지난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특수본 구성 전 기관이 마약 범죄에 엄정대응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15,182명) 대비 약 47.5% 증가한 22,393명 이고, 마약류 압수량은 전년 동기(635.4kg) 대비 약 43.2% 증가한 909.7kg임

【‘23년도 마약범죄 수사 성과】

구분	‘22. 1. ~ ‘22. 10.	‘23. 1. ~ ‘23. 10.	증가율(%)
마약사범 단속인원(명)	15,182	22,393	47.5↑
마약류 압수량(kg)	635.4	909.7	43.2↑

- 특수본은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하여 엄단하기로 결의하였음

- ①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 하고,
- ②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하였음

- 특수본 구성기관은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활성화 등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음

- 한편 '대검찰청·경찰청·서울시'는 특수본 회의에 앞서, 「유흥시설 마약 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 검찰·경찰·서울시는 최근 급증하는 유흥시설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 ①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② 마약범죄 단속을 위한 유흥시설 합동점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

- 서울시는 향후 유흥시설 내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의 식품위생·건축 분야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종합점검 후 위법 사항 발견시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

< 특수본 주요 수사 협력 사례 >

- ▲ ('23. 11. 영월지청·평창경찰서) 태국발 케타민 등 마약류 합계 약 30kg을 밀수입한 마약 밀수 조직 및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이를 판매한 마약 유통 조직 수사, 조직원 합계 27명 검거(20명 구속기소, 7명 불구속 기소 / 케타민·코카인 등 마약류 3.2kg 압수)
- ▲ ('23. 10. 부산지검·부산해경) 공조수사 통해 부산·경남지역 해양종사자 등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유통한 부산 폭력조직 조직원 등 마약류 판매·투약사범 27명 검거(14명 구속기소, 13명 불구속 기소 / 필로폰 98g, 대마 365g 압수)
- ▲ ('23. 8. 청주지검·국정원·세관) 해외 체류 선교사, 교회 목사 등 우리나라 종교인을 이용하여 야바 16,000여 정을 밀수한 외국인 등 밀수범 4명 구속 기소
- ▲ ('23. 8. 인천지검·인천공항본부세관) 약 2년간 바디팩커 등을 이용하여 케타민 17.2kg을 밀수한 4개 조직원 27명을 합동수사로 적발, 25명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

1 제3차 회의 개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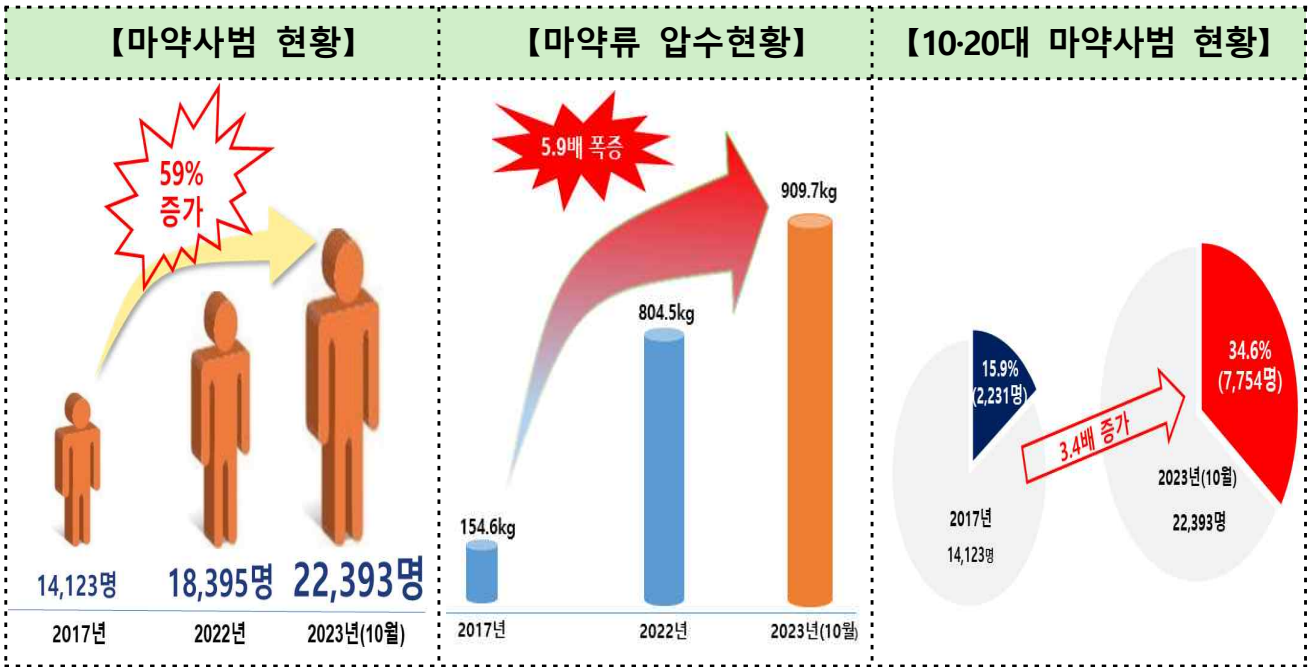
- (일시·장소) '23. 12. 6.(수) 14:20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
- (참석자)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박영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김갑식), 관세청 조사국장(한창령), 해경청 수사국장(장인식), 국방부 조사본부장(박헌수)·검찰단장(김동혁),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김명호),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장 등 19명
- (주요 내용) ① 특수본 산하 기관들의 협력수사 성과 분석 및 향후 계획 논의, ②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 협의

2 특수본 마약범죄 단속현황 및 수사성과

▣ 마약범죄 단속현황

- (마약사범)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17년 14,123명 → '22년 18,395명으로 증가하였고, '23. 1.부터 '23. 10.까지 22,393명으로 역대 최다(전년 동기 15,182명 대비 47% 증가)
 - 특히,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7,301명으로 전년 동기(3,991명) 대비 82.9% 증가하여,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 뚜렷
- (압수량) '23. 10.까지 마약류 압수량은 909.7kg으로 전년 동기(635.4kg) 대비 43.2% 증가하였고, 전년도 전체 마약류 압수량(804.5kg)을 넘어섬
- (10~20대 사범) '23. 10.까지 10~20대 마약사범은 7,754명(10대 1,174명)으로 전체의 34.6% 차지하고, 전년 동기(5,041명) 대비 53.8% 증가
 -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10대, 20대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

※ 10대 마약사범 : 119명('17.) → 481명('22.) → **1,174명('23. 10.)**



▣ 특수본 마약범죄 수사성과

- (마약범죄 총력 대응) '23년 마약사범수가 급증한 것은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들이 마약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한 결과임
- 검찰·경찰·세관·국정원 등이 상호 협력하여 마약 밀수·유통사범을 다수 적발하였고, 마약류도 대량 압수하여 유통을 차단하였음

< 특수본 산하 지역 수사실무협의체 주요 협력 수사사례 >

- ▲ 태국 發 케타민 등 마약류 합계 약 30kg을 밀수입한 조직원들, 밀수입된 마약을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유통한 조직의 핵심 조직원들 합계 27명 검거하여 20명 구속 기소, 7명 불구속 기소 ('23. 11. 영월지청, 평창경찰서)
- ▲ 해외 체류 선교사, 교회 목사 등 우리나라 종교인을 이용하여 야바 16,000여 정을 밀수한 외국인 등 밀수범 4명 구속 기소 ('23. 8. 청주지검, 국정원, 세관)
- ▲ 약 2년간 바디패커 등을 이용하여 케타민 17.2kg을 밀수한 4개 조직원 27명을 합동 수사로 적발, 25명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 ('23. 8. 인천지검, 인천공항본부세관)
- ▲ 3회에 걸쳐 인천공항으로 필로폰 합계 11kg을 자신의 신체와 기탁 수하물에 은닉하여 밀수한 말레이시아 국적 밀수범 3명을 적발, 각각 구속기소하고 필로폰 전량 압수 ('23. 11. 인천지검, 인천공항본부세관)
- ▲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12kg을 선물용 차로 위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후 제주공항으로 밀수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 2명 체포, 구속기소하고, 도주한 상선 1명에 대하여 말레이시아에 공조수사 요청('23. 11. 제주지검·제주세관)

- (검찰, 인터넷 유통 및 해외거주 마약사범 집중 검거) '다크웹 전담팀'이 10대~20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 이용 마약 유통사범 집중 수사

< 검찰청 인터넷 마약류 유통 및 대량밀수 사건 수사사례 >

- ▲ (텔레그램 마약류 유통) 텔레그램 채널에서 대마, 사일로신(환각버섯) 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판매하고, 대마를 소지한 판매자 체포하여 구속기소('23. 10. 중앙지검)
- ▲ (텔레그램 마약류 수입·유통) 드라퍼 등 공범을 모집하여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유통시킨 총책 등 7명 검거, 6명 구속기소('23. 8. 인천지검)

- 국내·외 유관기관, 해외 파견 수사관 등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로 해외 도피·거주 중인 마약 밀수사범 검거·강제송환하여 엄단

< 국제공조로 해외 밀수범 강제송환 및 엄단한 사례 >

- ▲ '19. 12. ~ '21. 4. 필로폰 약 900kg을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여 그중 500kg을 호주로 밀수출한 호주 국적(한국계)의 베트남 거주 밀수사범을 검찰, 세관, 국정원 등이 외국 수사기관들과 국제공조수사로 검거, 국내로 강제송환하여 징역 30년 선고, 필로폰 404kg 압수('22. 9. 부산지검)
- ▲ '22. 12. ~ '23. 3. 필로폰 약 6.5kg, MDMA 239정 등을 운반책들의 속옷에 숨겨 밀수한 태국 거주 총책을 태국 파견 검찰수사관이 태국 마약청(ONCB), 미국 마약청(DEA)과 공조수사로 검거, 7. 26. 국내로 강제송환하여 구속 기소('23. 8. 부산지검)
- ▲ '23. 3. 태국에 거주하면서 필로폰 172g을 한국으로 보내 밀수입한 한국 국적 밀수범 2명을 태국 파견 검찰수사관이 태국 마약청(ONCB), 태국 이민국과 공조수사로 검거, 11. 22. 국내로 강제송환하여 현재 구속수사 중(대구지검)

- (경찰, 9개월 간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합동단속 추진단 편성, 3월~11월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및 범죄수익 추적

- '23. 3. ~ '23. 11. 마약류 사범 총 15,839명 검거, 2,379명 구속하여, 전년 동기 대비 검거인원(10,434명)은 51.8%, 구속인원(1,439명)은 65.3% 증가

< 경찰청 주요 마약류 집중 수사사례 >

- ▲ (마약류 대량 압수) 해외 3개국(캄보디아, 중국, 나이지리아) 연계 마약 조직 적발, 다량의 필로폰 밀반입·국내 유통을 지시한 해외총책 등 총 74명 검거(구속 13)
 ※ (압수물) 필로폰 18.7kg, 범죄수익 1,860만원 등 (서울청 마수대)

▲ (마약류 밀반입)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 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총 76명 검거(구속 12) / 4명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 (압수물) 필로폰 2.6kg, 엑스터시 237정 등 (인천청 강수대)

▲ (마약류 밀반입)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 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총 58명 검거(구속 23) / 4명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 (압수물) 필로폰 2.6kg, 엑스터시 237정 등 (경기남부청 강수대)

▲ (클럽 마약류) 대구·서울·부산 등 클럽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손님에게 판매·교부하여 유통한 종업원 및 매수·투약자 등 총 88명 검거(구속 9)

※ (압수물) 케타민 99g, 엑스터시 37정 등 (대구청 광수대)

▲ (인터넷 마약류) 마약류 범죄단체를 조직 후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국내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등 총 77명 검거(구속 25) / 5명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 (압수물) 필로폰 1.65kg, 기소 전 추정보전 9,825만원 등 (경기남부 수원중부서)

○ (해경, 마약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첩보 입수·외국인 마약범죄·해양 밀반입 단속에 특화된 『마약수사 전담팀(86명)』 구성('23. 4.)

- 23. 11. 기준 해양 마약범죄 검거인원 447명으로 전년(274명) 대비 63% 증가, 구속인원 86명으로 전년(43명) 대비 100% 증가

< 최근 실무협의를 통한 주요 해경 마약범죄 수사사례 >

▲ '23. 5. 2. 통영지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해안 일대 외국인 선원 등을 대상,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판매·유통한 외국인 마약유통조직 15명 검거(7명 구속 / 엑스터시 304정, 케타민 11.95g, 시가 6,500만원 상당 압수)

▲ '23. 3.~10. 부산지검과 사전정보 공유 등 협조를 통해 부산·경남지역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 마약을 판매·유통한 부산 폭력조직 조직원 등 마약류 판매·투약사범 27명 검거(14명 구속 / 필로폰 98g(3,266명 투약분), 대마 365g(12,166명 흡연분) 압수)

▲ '23. 3.~10. 광주지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남해권 지역 태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마약류를 유통한 마약류 판매·투약사범 16명 검거(14명 구속 / 크라툼 1kg 및 액체 8L(약 2,000명 투약분) 압수)

○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23. 1. ~ '23. 10. 마약류 밀수사건 574건 단속, 마약류 556kg 적발(전년 동기간 대비 건수 7%↓, 중량 28%↑)

[최근 5년 간 마약류 밀수단속 현황]

(단위: 건, kg)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10월		전년동기대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총괄	661	412	696	148	1,054	1,272	771	624	574	556	7%↓	28%↑

< 관세청 주요 마약밀수 단속사례 >

- ▲ 독일세관과 국제통제배달 등 공조수사로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케타민 약 2.9kg (약 6만명 동시 투약분) 적발 및 인천지검과 합동수사를 통해 고교생과 그 공범 구속 (23. 6. 인천지검, 인천공항세관, 독일세관)
- ▲ 부르키나파소발 국제우편을 통해 식재료와 혼입하여 은닉한 압착 대마초 18.7kg (시가 18.7억원) 적발 및 통제배달을 통해 밀수사범 검거 (23. 7. 인천공항세관)
- ▲ 철저한 여행객 동태 감시 및 휴대품 검사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대마초 약 4.5kg 적발 및 인천지검과 합동수사로 한국계 미국인 부부 등 3명 검거 (23. 7. 인천지검, 인천공항세관)

- **(국방부, 군대 내 마약근절 추진)** 임관예정자·장기복무 지원자 마약 검사 시행(23. 8.부터) 등 군내 마약 유입 차단, 조사본부 수사교육단에 마약수사과정 개설(23. 8.부터) 등 군내 전문수사관 양성
- **(국정원, 국제공조수사 강화)** 국내·외 마약 수사기관 간 공조 체계 구축, 해외 도피 마약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및 강제송환 등 지원

3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 대응방안

▣ 대검, 의료용 마약류 사범 엄단 방침

- **(의료용 마약류 불법 공급 사범 엄단)** 의료용 마약류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무관용 원칙 적용하여 원칙적 구속수사
 - 유통·공급사범의 마약류 입수 경로 파악하여 공급처 추적, 타인 명의 처방, 의료인의 과잉·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 원인행위 철저히 차단
-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 엄벌)**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중독자는 초범이라도 구공판 원칙,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는 구속수사를 통한 격리·재범 방지
- **(영리 목적 마약류 과다 처방병원 의료인 등 엄단)** ① 의료인이 의료 목적 외 마약류 사용으로 중독자를 양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② 마약류 셀프 처방 후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수수·매도 등 유통한 경우 초범이라도 사안 중할 경우 구속수사

<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수사사례 >

-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11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가 함유된 ADHD 치료제 합계 8,916정을 총 208회에 걸쳐 처방받아 매수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기소 ('23. 10. 부산지검)
- ▲ 식약처와 공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추간판탈출증 등을 병자하여 총 575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7,655매를 매수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기소, 그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의사 2명(1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23. 4. 서울중앙지검)

▣ 식약처, 유관기관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 (마약류오남용감시단 운영) 식약처 주관으로 경찰청·지자체·보건복지부 등과 셀프처방, 과다처방·과다투약 등 마약류관리법위반 우려 의료기관에 대해 매월 합동단속

※ 오픈런병원(5월, 식약처·복지부), 셀프처방 및 오남용(6월, 식약처·경찰), 명의도용(7월, 식약처·지자체), 셀프처방(8~9월), 대마 재배지(10월, 식약처·경찰) 등 점검

4 향후 주요 계획

▣ 특수본 산하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 협력 강화

- 특수본 산하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검찰, 경찰, 세관, 해경, 국정원 등) 협력 강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 광주·전남지역(12. 1.), 부산·인천·경기북부지역(11. 30.), 전북지역(11. 29.), 대구·경북지역(11. 21.), 서울북부지역(11. 15.), 서울동부지역(11. 14.), 경남지역(11. 3.), 대전·충남·세종지역(10. 30.) 각 마약수사실무협의체 개최, 나머지 지역도 연내 개최 예정

▣ 기관별 국제공조 강화하여 마약 대량 밀수 차단

- 특수본 소속 각 기관들이 해외 마약수사기관들과 공조기능 강화하여 마약류 대량 밀수 차단 및 해외 도피 마약사범 강제송환 활성화

- (검찰) 말레이시아 發 필로폰 밀수사건 급증*에 따라, 말레이시아 경찰청과 마약 발송책에 관한 수사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 진행

* 말레이시아발 마약류 적발량 : '20년 19kg → '21년 15kg → '22년 7kg → '23년 11월 89kg

- (관세청) ^{양자}태국(3차)·베트남(2차), 동남아 및 유럽국가로 마약밀수 합동단속 확대, ^{다자}한-아세안 합동단속 추진 등 국제협력 강화
- (경찰) 마약 관련 국제기구·다자협의체를 통한 정보 공유, 국제 마약 회의 개최, 주요 해외 수사기관 방문 등 교류 강화
- (해경) 해양 마약수사에 특화된 『국제 해상마약수사 공조포럼』 추진, 에콰도르 등 중남미 마약생산국과 업무협약 예정(12. 6.~15.)

▣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 (식약처, 중독재활센터 신설) 현재 전국에 3개밖에 없는 중독재활센터를 14개 지역에 추가 신설(예산 63억 원) 예정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 시행)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와 함께 중독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확대 운영 추진('23. 4.부터)

5 대검찰청-경찰청-서울시 업무협약(MOU) 체결

▣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요

- (일시·장소) '23. 12. 6.(수) 14:00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
- (참석자)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10명
- (주요 내용) ① 마약류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의 상호, 소재지 등에 관한 정보 공유, ②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을 위한 기관 간 합동점검 참여 및 지원

▣ 협무협약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서울지역 클럽·유흥주점 등 마약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흥시설 내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해당 업소 정보(상호, 소재지) 공유

- 서울시는 해당 업소의 행정법규 위반(식품위생, 건축 등) 종합점검 후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 조치
- 경찰의 유흥시설 마약 단속과 서울시 공무원의 위생점검 합동 실시
 - 마약 단속 인력 및 경찰관 현장출입 지원, 마약류 투약 범죄 의심사례 확인 즉시 대응
- **(기대효과)**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업소 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기대 ☒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담당 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과	책임자	과 장	백승언	(02-3150-0141)
		담당자	계 장	이주만	(02-3150-2171)
담당 부서	관세청 국제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현석	(042-481-7740)
		담당자	사무관	조흥래	(042-481-7702)
담당 부서	해양경찰청 형사과	책임자	과 장	김지한	(032-835-2058)
		담당자	계 장	김기석	(032-835-2161)
담당 부서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	책임자	부 장	양재도	(02-748-1710)
		담당자	과 장	전희정	(02-748-1711)
담당 부서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책임자	단 장	김진락	(02-748-1840)
		담당자	과 장	전형진	(02-748-1841)
담당 부서	식품의약안전처 마약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주	(043-719-2893)
		담당자	사무관	송현숙	(043-719-2804)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진숙	(02-2133-4700)
		담당자	팀 장	이용호	(02-2133-4715)